전남대-동아에스텍 그린 결합재 합작

자본금 80억원 출자 합작기업 설립 ... 저탄소로 시멘트 대체소재 사용

전남대학교는 9월7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에스텍과 저탄소 그린 결합재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와 동아에스텍이 현금 등 자본금 80억원을 출자해 설립하고 무공해 친환경 시멘트 대체소재인 저탄소 그린 결합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저탄소 그린 결합재는 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이 개발했으며, 고로 슬래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다기능의 시멘트 대체소재이다.

중금속과 독성을 거의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 절감 등 장점이 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잘 맞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성과를 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재투자해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술사업화의 선도 모델이다.

동아에스텍은 도로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 생산 전문기업으로 앞으로 건축용 단열재 테크 생산과 국산 천연테크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7>